

회전근개파열의 절개봉합술 (Open Repair of Rotator Cuff Tear)

전 재 명
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 정형외과학교실

1835년 Smith가 사체부검에서 회전근개파열을 발견하고, 1934년 Codman이 파열된 회전근개를 봉합한 경험을 보고한 이래로 회전근개파열의 치료 방법으로 절개봉합술이 널리 사용되어 왔다. 또한 1972년 Neer가 회전근개의 파열의 수술에는 전방견봉성형술이 필수적이라는 제안을 한 이후로 회전근개봉합술의 수술성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대부분의 경우 전방견봉성형술과 파열된 회전근개의 봉합술이 치료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1980년대에 Ellman이 관절경하 견봉성형술의 술식을 고안한 이후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소규모절개봉합술의 술식이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몇 가지 방법의 관절경하 봉합술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관절경하 봉합술은 아직 장기적인 추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널리 쓰여지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은 절개봉합술의 방법에 의하여 수술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이다.

특히 파열된 범위가 대범위 내지 광범위한 예에서는 관절경하 봉합술이나 소규모절개봉합술은 제한이 많아서 절개봉합술이 보다 유용하다. 또한 이러한 대범위 내지 광범위 파열의 경우나, 남아있는 회전근개의 건조직이 취약한 경우, 또는 파열된 건의 단단이 내측으로 심하게 함몰되고 유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개봉합이 보다 만전을 기하는 술식이 된다.

근래에 소개된 Bony Trough를 만들지 않는 술식은 종래의 Bony Trough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봉합술에 비하여 보다 간편하고 용이하며, 골-건 봉합부위에 장력을 적게 주며, 건의 본래의 해부학적인 주행방향을 되도록 보존하며, 골-건봉합 부위에 넓은 접촉면을 제공하며, Osteoporotic Bone에서 Bony Trough가 본의 아니게 골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나 Bony Trough를 만들지 않으면 이러한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저자는 1995년 3월부터 Bony Trough를 이용하지 않는 절개 봉합술식을 시행하여 1997년 3월까지 총 52예의 회전근개 전층 파열을 경험하였으며, 이 중 23예에서 6개월 이상의 추시가 가능하였다. 이에 저자는 이러한 술식의 수술수기를 중심으로 저자의 경험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